종근당고촌재단, '주거복지문화대상' 종합대상

대학생 무상 기숙사 지원
청년 주거문제 해소 기여

종근당고촌재단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복지문화를 실천하는 단체 및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종근당고촌재단 최정길 사무국장(왼쪽)과 대회장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수상단체 중 유일한 민간 장학재단으로,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민간장학재단 최초로 무상기숙사인 '종근당고촌학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1호관을 시작으로 2012년 동대문구 휘경동에 2호관, 2014년 광진구 중곡동에 3호관을 개관하며, 현재까지 총 988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학사생들이 고촌학사 소재지역 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봉사도 함께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내년에는 종근당고촌학사 4호관을 개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주거비 걱정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B증권,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

KB증권은 지난 9일 글로벌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러셀 인베스트먼트(Russell Investments)와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러셀 인베스트먼트 서울 대표 사무소에서 KB증권 자산관리(WM)총괄본부 이형일 전무와 러셀 인베스트먼트 김유석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해 진행됐다.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1936년에 설립된 글로벌 금융서비스 업체로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통 및 대체 자산 투자컨설팅, 포트폴리오 운용을 포함한 통합 투자솔루션을 제공한다. 운용 자산만 약 343조원 규모다. 특히 글로벌 OCIO(외부위탁운용관리)사업 부문에서 약 400여 기관투자자에게 OCIO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위 사업자다.

KB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해외 대체투자 자문과 서비스, OCIO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OCIO 운용전략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KB증권 이형일 전무(왼쪽)와 러셀 인베스트먼트 김유석 대표가 포즈를 취했다. /KB증권

오늘의 운세 12월 11일 (음 11월 1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과거의 내 모습을 자녀에게서 본다. 48년생 고쳐야 할 것을 내버려 둔 결과가 나타난다. 60년생 믿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다. 72년생 친구와의 거래를 만족스럽게 성사시킨다. 84년생 나의 성공은 가족의 행복이 원천이다,

소 37년생 병문안 갈일이 있다. 49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61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니 소화제 준비. 73년생 뱀띠와의 거래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85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호랑이 38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5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날. 62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누구라도 싫어한다. 74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86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

토끼 39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51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63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5년생 망설임이 좋은 결과. 87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용 40년생 중심을 잘 잡고 일을 처리. 5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64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76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88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원동력.

뱀 41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쉬운 법. 53년생 향기에 취해서 헛돈을 쓰게 된다. 65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77년생 저력을 과시하고 명예도 얻는다. 89년생 탐구가 끝났으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

말 42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54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 66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78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90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친다.

양 43년생 자녀에게 매번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55년생 고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 67년생 조급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79년생 손님이 찾아오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91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난처하다.

원숭이 44년생 만만치 않은 현실이 슬프다. 56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 68년생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8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커지기 마련. 92년생 받기보다 상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닭 4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한 방법. 57년생 오늘의 영광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 6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81년생 혼자여도 괜찮은 척 버텨보자. 93년생 정든 친구가 먼 길을 떠난다.

개 46년생 시간을 갉아먹는 기분. 58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70년생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맡는다. 82년생 항상 성실하니 큰 일거리가 들어온다. 94년생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좋은 일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9년생 태양은 항상 그곳에 있으니 희망을 품자. 71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3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하기 나름이다. 95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6		
	9						1	
		7	8	1	3	2		
	4	1		2		3	9	
			1		6			
	2	3		8		5	6	
		6	4	7	9	1		
	3						7	
		8		5		4		

			1		4			
		1				3		
	4		3		9		7	
	7			8			3	
1		5	7		2	9		4
		4	2		7	8		
	8	2	5	9	3	4	6	
	1	3				7	5	

스도쿠 정답

6	2	4	1	5	3	8	7	9
5	7	9	8	6	2	4	3	1
3	8	1	9	4	7	2	5	6
1	6	5	4	7	9	8	2	3
9	7	8	3	2	1	5	4	6
2	4	3	9	8	5	6	1	7
8	5	1	9	2	6	3	4	7
4	2	7	8	3	5	6	1	9
3	9	6	1	7	4	5	2	8

8	1	5	7	9	2	6	3	4
3	9	2	6	4	5	8	1	7
4	6	7	8	1	3	2	5	9
6	4	1	5	2	7	3	9	8
5	8	9	1	3	6	7	4	2
7	2	3	9	8	4	5	6	1
2	5	6	4	7	9	1	8	3
1	3	4	2	6	8	9	7	5
9	1	3	5	4	7	6	2	6

문제 제공= 보누스

자꾸 오르는 車보험료

기자 수첩

김 희 주
〈파이낸스&마켓부〉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인상했는데 내년에 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인상분은 5%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손해율에 있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통상 78~80%를 적정 손해율로 본다. 올해 10월까지 손보업계의 누계 손해율이 90.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포인트 올랐다.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와 차 고장이 빈번해 적자 규모가 10~12월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은 여러가지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원가 상승 요인들이 즐비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손해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자동차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해 손해율 관리에 나서거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할인 등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당국은 내년 총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추가 인상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슈화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결국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보험이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보험 혜택이 줄어든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등 보험금 누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가입자들도 수리비, 치료비 등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hj89@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재물복을 살리는 선택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B는 태어남을 뜻하는 birth,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이다. 그럼 C는 뭘까. 선택을 말하는 choice가 된다.

유머처럼 하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이다. 그런 선택의 결과에는 재물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관심이 많다. 신기한 건 재물복이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때가 많다. 큰 재물을 모은 사람의 복은 타고난 것이다.

자기 재물복은 그저 그런데 부모나 조상들이 쌓은 공덕이 재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선한 일을 쌓은 경우이다. 사업 아이템이 대운을 올라타고 시대 유행과 맞아떨어져 재물을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재물이 흐르는 물길에 올라타는 경우이다.

그러나 운세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부유해지는 건 사주나 운세에서 선택을 잘해서 가능하다. 그 선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대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 제품을 내어놓는다.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다. 모든 것들은 당사자의 선택이다. 자기의 선택이 운세와 시너지효과를 내게 되면 들어오는 재물에 가속도가 붙는다.

아무리 운세가 좋은들 음주와 가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일 흥청망청하는 생활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재물이 들어올 리 없다. 재물복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있던 재물복마저 마른다. 인생은 말 그대로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재물복이 많은데 생활이 빈한하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45호